야우(野牛)는 들소

질레트코리아 과장 김영경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들(field)을 뜻하는 야(野)자는 밭·벌판·성밖과 광야를 뜻하는 외에도 몇 가지의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재야(在野)와 같이 정부 기구의 밖이나 민간을 뜻한다. 또 질박하다, 겉치레를 하지 아니하다, 촌스럽다와 같이 쓰이는 야부(野夫)가 있다. 야만인(野蠻人)과 같이, 미개하다 그리고 길들지 아니하다와 같이 야성(野性)이 있는가 하면, 야심(野心)이나 야망(野望)과 같이, 신분에 맞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범위를 의미하는데, 분야(分野)라는 단어가 그 대표적이다.

야담(野談)은 야사(野史)이야기이다. 정사(正史)가 아닌 외사(外史)로서, 사관(史官)이외의 사람이 꾸민 역사이야기를 말한다.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궁중비화나 정치의 뒷이야기 등이 대표적으로 그것이다.

같은 발음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징기스칸의 법전을 지칭하는 야사(Jasa)가 있다. 몽고어로 명령이나 조칙(詔勅)을 의미하는 자사크(Jasakh)를 페르시아식으로 발음한 말이라고 한다. 징기스칸이 제국통치를 위해 반포한 법령을 집대성한 것으로, 관습법을 기초로 하여 행정법·민법·형법·상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안타깝게도 산일되어서 현재는 일부분만 남아 있지만, 후에 이집트의 맘루크조(朝)와 티무르조, 그밖에 아시아제국의 법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 역대왕들의 일화집이 있는데, 이것이 야담(野譚)이다. 태조의 고조부인 목조(穆祖)에서 인종에 이르는 역대 임금들의 뛰어난 인품과 넓은 아량, 그리고 기이한 사적을 설화체로 엮은 책인데, 편자는 아깝게도 지금까지도 미상이다.

또한 첨술서 야학결(野鶴訣)의 편자는 야학노인(野學老人)으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이름과 연대는 지금까지도 역시 미상이다. 필자가 고금의 점서(占書)를 두루 섭렵한 후에, 체험을 통해 고증한 내용을 간추려 엮은 귀중한 책이다.

다시 돌아와서, 야인(野人)하면, 예절없는 사람,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 재야의 사람을 의미한다. 또 시골사람, 꾸밈이 없고 순진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개인이나 야만인을 뜻한다. 역사적으로는, 옛날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살던 종족을 지칭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대개는 여진족을 지칭하였다. 여진(女眞)은 동부 만주에 살았던 퉁구스계통의 민족이었다. 여진족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수도 없

이 달라 춘추전국시대에는 숙신(肅愼), 한(漢)나라 때에는 읍루(挹婁), 남북조시대에는 물길(勿吉), 수(隋)와 당(唐)나라 때는 말갈(靺鞨)로 불리어 오다가 10세기 초의 송(宋)나라 때 처음으로 여진이라 하여 명나라에서도 그대로 따랐으나 청(淸)나라 때는 만주족이라 칭하였다.

역사적으로 여진족이 우리민족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고려 초기부터라고 한다. 그 무렵 여진은 고려를 상국으로 깍듯이 섬겼는데, 고려는 이를 잘 회유하여 무역을 허락하고 귀화인에게는 가옥과 토지를 주어 살게 하였다. 그러나 숙종 때에 이르러 만주 하르빈 지방에서 일어난 완안부(完顔部)의 추장 영가(盈歌)가 여진족을 통합하고 북간도 지방을 장악한 뒤에 남하하여 두만강까지 진출하였다.

그 후 여진은 세력을 확장하여 1104년에는 평양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하는 수 없이 윤관(尹瓘)을 보내 화맹을 맺게 하는 한편, 1107년에는 윤관으로 하여금 함경도 일대에 쳐들어온 여진족을 토벌하기도 하였다. 그 후 아쿠타가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국호를 금(金)이라 칭하고 고려에 형제관계를 요구하여 왔다. 또한 요(遼 : 契丹)를 멸망시킨 뒤에는 건방지게도 고려에 사대(事大)의 예를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고려를 이은 조선 초기의 대여진정책은 할 수 없이 회유와 무력의 양면정책을 썼다. 귀순을 장려하여 투항하여 오는 자에게는 관직과 토지를 주었고 경성(鏡城)과 경원(鏡源)에 무역소를 두어 국경무역을 허락하였다. 세종(世宗)은 4군(群) 6진(鎭)을 두어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연안선을 확보하였고, 세조 때는 남이(南怡)와 신숙주(申叔舟) 등으로 하여금 준동하는 여진을 사정없이 토벌케 하였다

그 후 여진족은 명나라의 국력이 점점 쇠약해지자 이 틈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러다가 1616년(광해군 8) 여진의 추장 누르하치가 심양(瀋陽)에 후금(後金 : 63년에 淸으로 개칭)을 세우고, 1627년(인조 5)에는 정묘호란을 일으켰고, 1636년에는 병자호란으로 조선을 침공하였다. 이 후부터 조선은 청나라에 조공(朝貢)하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적(女狄)은 여진의 별칭이다. 《사원(辭源)》에 의하면 요(遼)나라 흥종(興宗)의 이름이 종진(宗眞)이므로, 요나라 사람들이 그 이름을 피하여 진(眞)을 직(直)이라고 고쳤는데 직과 적(狄)은 그 음(音)이 비슷하였으므로 직을 적으로도 썼다. 지금은 적을 오랑캐를 뜻하는데, 특히 북방의 만족을 지칭한다. 널리 미개한 야만 민족의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야인(野人)이라고 하면 조선조 때에 북쪽 또는 서북쪽에 살고 있었던 여진족(女眞族)을 특별히 지칭하게 되었다. 이 야인은 고려시대부터 함경도 일부분과 평안도 일부분에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세종 때에 진(鎭)을 개척함에 따라 대부분이 강을 넘어 만주로 도주했다.

유사하게, 야전병원(野戰病院)은 보통 사단(師團)이상의 대부대가 전투할 때에 전장에 임시로 개설되는 병원이다. 전선의 응급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다시 수용하여 치료한다. 그러나 전선의 추이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며, 이후의 치료는 후방의 병참(兵站)병원에 인계한다.

또 야외극(野外劇)은 옥외에서 상연하는 연극이다. 광의로는 극장내에서 상연하는 옥내극에 대하여 옥외극 일반을 가리키며, 협의로는 자연 그대로를 배

경으로 하여 무대나 세팅(setting)을 하여 상연하는 연극을 말한다. 역사적으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연극의 발생단계나 원시초기단계 및 성장기에는 야외극적 형태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원시연극은 이러한 형식에 의존하였으며, 고대 그리스연극도 야외극의 전형적 성격을 보였으며, 수난극(受難劇)을 처음으로 시도한 중세연극도, 그 대부분이 가두에서나 광장을 무대로 노천에서 상연하였었다. 야외극의 특색은 광활한 옥외에서 해방되고 자연의 환경에 융합한 연자(演者)와 관객간의 친밀한 교류가 특징적이다. 또한 친선적이고 공공행사적 색채가 강하며 비상업성 연극적 성격을 가진 점이라는 것이다.

근세 이후에 와서 연극이 극장의 옥내를 주요한 무대로 하여 상업주의가 일반화됨에 따라 야외극은 슬그머니 방류적(傍流的) 존재로 전락되었다. 야외극 운동은 지금도 각 국에서 다투어 행하여지나, 19세기 이후의 사실주의(寫實主義)를 주류로 하는 근대극은 반발(反撥)하여, 야외극의 정신을 의식적으로 부활시키려고 한 것이다.

미국에서 특히 각종 공공 연극은 시(市)나 문화단체에의 기념행사로서 야외극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근래에는 많이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립민중극장(TNP)은 대중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여 야외극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그 상연의 의의를 중요시하고 있다.

야(野)자와 관련하여서, 야운자경(野雲自警)은 고려 말엽의 중 야운(野雲) 우(玗)의 자경문(自警文) 따위를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선조(宣祖) 10년(1577)에 간행되었는데, 처음으로 불교에의 뜻을 두는 이들을 경계하는 글을 언해(諺解)한 계초심학입문(誡初心學人文)이 있다. 그리고 불도에 발심(發心)하여 물욕(物慾)을 버리고 선행을 닦는 글을 언해(諺解)한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및 야운자경(野雲自警) 등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야외박물관(野外博物館)은 박물자료군(博物資料群)을 충분히 과학적으로 연구한 후 원지에 그 원형대로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상태로 이축복원(移築復原)하여 전시해설(展示解說)하는 박물관을 지칭한다. 고고학적(考古學的) 그리고 역사적 유물·유적·자연물·자연환경 등에 관한 자료중에 본래의 자태가 야외에서 대기를 쓰이고 있는 박물관 자료가 있다. 즉 고분(古墳)·가옥·암석의 노두(露頭 : 바윗돌이나 광상이 땅밖으로 드러난 부분)·지질구조(地質構造)·식물군락(植物群落) 등의 현상과 특질 및 그 환경 등을 보아서 원지에 그대로 있는 것은 그것을 살리는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웨덴의 오슬로(Oslo) 교외에 있는 스칸센 민속원(民俗園)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옐로스톤공원 내에 있는 노방(露傍)박물관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옐로스톤(Yellowstone National Park)은 미국 최대의 국립자연공원이다. 대부분은 와이오밍(Wyoming)주 서북부에 있고 아이다오(Idaho)와 몬타나(Montana) 두 주에 걸쳐 있다. 풍경이 웅대하고 간헐천과 온천이 풍부하며, 이곳을 흐르는 옐로스톤강(the Yellowstone)에는 장려한 폭포가 있고 또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동식물원 및 수족관(水族館)은 살아 있는 동·식물의 야외전시(野外展示)를 주로 하며 야외박물관의 일종이라 볼 수 있으나 현재는 이것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